

◆차례◆

1. 문학 속으로

(1) 시와 서정

동짓달 기나긴 밤을_황진이-----1쪽 (35문제)

(2) 소설과 서사

봄.봄_김유정-----11쪽 (47문제)

(3) 수필과 교술

이옥설_이규보-----34쪽 (39문제)

(4) 시나리오와 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_민규동-----46쪽 (46문제)

2. 말과 글의 힘

(1) 말과 글을 통한 소통

한국의 정체성_탁석산-----68쪽 (34문제)

(2) 논증과 토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관한 토론-----82쪽 (40문제)

3. 삶에서 책을 찾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_황지우-----100쪽 (20문제)

4. 국어의 규범과 변화

(1) 음운 변동-----108쪽 (61문제)

한글 맞춤법-----124쪽 (65문제)

(2) 국어의 역사성-----141쪽 (61문제)

5. 나, 너, 우리의 말과 글

(1) 점검하며 읽고 쓰기

논리 너머의 낯선 세계가 깨어난다_이주현-----157쪽 (32문제)

(2) 의사소통의 관습과 다양성-----173쪽 (20문제)

▶정답-----182쪽

▶해설-----185쪽

(버전: 2020.03)

1-(1) 동짓달 기나긴 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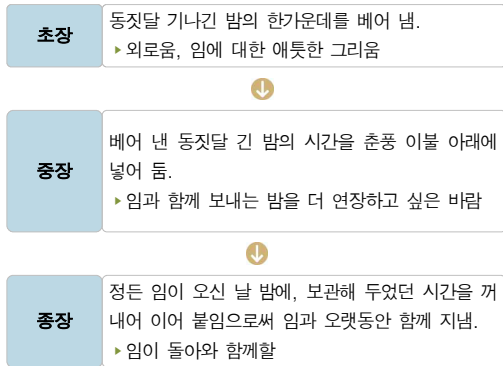
◆핵심 정리

갈래	, 고시조, 단시조
성격	감상적, 낭만적, 연정적
어조	그리움을 담은 여성적 어조
제재	밤
주제	임에 대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함. 음성 상징어(의태어)를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적절하게 살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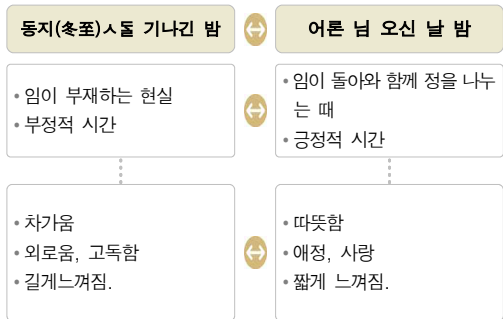
• 구성

해당 부분	중심 내용
초장(1행)	임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중장(2행)	임과 함께 보내는 밤(봄밤, 시간)을 더 연장하고 싶은 바람
종장(3행)	임이 돌아와 함께할 시간을 간절히 기다림.

• 시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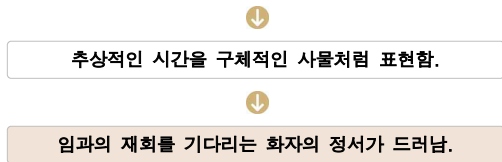


• '밤'의 양면성과 시적 화자의 정서 대비



•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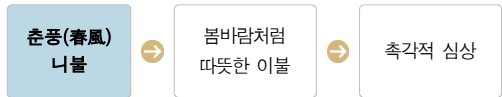
동지(冬至)사들 기나긴 밤	자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넣어 둠.	'서리서리 너헛다가'
	펼	'구뵈구뵈 퍼리랴'



• 표현상 특징

화자의 적극적 태도	임과의 이별로 인해 슬픔에 잠겨 있기보다는 동짓달 긴 밤의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다시 임을 만나는 날에 이어 붙이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줌.
유음을 활용한 운율감 형성	'동지사들', '밤을', '허리를', '니불', '서리서리', '어른 님', '오신 날', '퍼리랴' 등에서 유음을 많이 활용함으로써 운율감이 느껴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림.	'서리서리', '구뵈구뵈'와 같은 의태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노래함.

• 감각적 심상이 드러난 시어



• 시조의 특징과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비교

시조의 특징	'동짓달 기나긴 밤을'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총 6구로 구성됨.	[초장의 예] 동지(冬至)사들 / 기나긴 밤을 1구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2구
3·4 / 4·4 조의 음수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사들 기나긴 밤을 3 5(4) 한 허리를 버혀 내어 4(3) 4
4 음보율	[초장의 예] 동지(冬至)사들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어

1-(1) 동짓돌 기나긴 밤을

• 대조적 이미지의 활용

동짓돌 • 이미지
• 임의 부재로 인해 밤이 더 길게 느껴지는 외로움의 시간임.



춘풍 • 따뜻함의 이미지
•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시간임.

**서리서리 너
헛다가** 너 임과의 재회를 준비하는 화자의 애뜻하고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



**구뵈구뵈
펴리라** 임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과 변함없는 사랑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1.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3·4(4·4)조의 음수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는 4음보로 된 정형시이나, (나)는 음보가 일정하지 않은 자유시이다.
- ③ (가)의 ‘구뵈구뵈 퍼리라’와 (나)의 ‘다시 만나랴’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 ④ (가)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된 평시조이며, (나)는 3연으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 ⑤ (가)와 (나)는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독자에게 친근감을 준다.
- ④ 자연물 ‘춘풍’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원망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통해 입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화자의 정서가 (가)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晝夜)에 흐르거든 옛 물이 *있을손가
 인걸(人傑)도 물과 같도다 가고 아니 오는 것은
 *있을손가 : 있겠는가?
- ② 청산(靑山)은 내 뜻이요 녹수(綠水)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 *에어 가는고
 *변할손가 : 변하겠는가?
 *에어 : 흘러
- ③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려허랴
 말씀도 *우음도 아녀고 몬내 도하 흐노라
 *우음 : 웃음
- ④ 한겨울에 벼웃 입고 바위굴에 눈비 맞아
 구름 긴 별도 췌 적이 없지만
 서산에 해 졌다는 소식에 눈물 나는구나
-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찾아 연결한 것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밤 - 허리
- ② 서리서리 - 구뵈구뵈
- ③ 동지(冬至)스들 - 춘풍(春風)
- ④ 기나긴 밤 - 님 오신 날 밤
- ⑤ 밝음 속에 - 어둠 속에

가락고등학교 (서울)

5. (가)에서 <보기>의 ㉓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한 개의 단어로 쓰시오.

<보기>

(㉓)은/는 순우리말로 된 음성상징어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 할 뿐 아니라 동그랗게 마는 모양을 시각적 심상이 잘 드러나게 구체화하여 표현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6. ㉑~㉔을 현대어로 고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동방고등학교 (대전)

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각 행을 네 박자의 호흡에 맞추어 읽는다.
- ② (가)는 정형적인 운율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대비와 대구를 통해 철학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해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단어가 함축적이고 화자의 정서를 압축하여 보여 준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8. (가)는 어떠한 발상으로 주제를 형상화했는지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어떻게		
(기나긴) ①밤을	㉒버혀 내어	→ (이불 속에) 넣었다가	→ 퍼리랴

- 발상의 특징
- ③ 비물질적인 대상을 물질처럼 표현함
- 발상의 효과
- ④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 냄
- ⑤ 입에 대한 원망과 이별의 애절함을 강조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동인고등학교 (부산)

9. (가)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인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였다.
- ② 동일한 형태소가 반복되는 순우리말을 사용하여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렸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하게 배열하여 내면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 ④ 비슷한 길이의 유사한 표현을 나란히 배치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⑤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여 만들어냄으로써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였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10. (가)에 나타난 의미의 대립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의 존재 여부
- ② 계절의 춥고 따뜻함
- ③ 상황에 따른 상반되는 입장
- ④ 시적 자아와 임
- ⑤ 시간의 길고 짧음

동인고등학교 (부산)

11. 다음 중 (가) 시조에 드러난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마을 하늘은 물이런 듯 맑고 달빛도 푸르구나./ 지다 남은 앞에 서리가 쌓일 때/ 긴 주름 드리우고 혼자서 잠을 자러니 /병풍의 원앙새가 부러웁네/ - 취선
- ② 뒹벼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잠자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나거든 나인가 여기서. - 홍량
- ③ 배꽃 흩어 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임/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 계량
- ④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던가/ 이시아 하더면 가라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황진이
- 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폼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를 설워하나이다. - 박인로

동인고등학교 (부산)

12. (나) 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 일기를 썼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누구를 만난든 성실과 정직을 최선으로 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말씀을 오늘에야 깨달았다. ⑤지난 번 길가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의 집을 들어드렸는데 오늘 그 할머니를 우리 가게에서 만났다. ③할머니는 내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많이 사시는 듯했다. ①할머니와 나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다운 시간을 잠시 가졌다. ②사람은 또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일이었다.

- ① A ② B ③ C
- ④ D ⑤ E

동인고등학교 (부산)

13. 문학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정 갈래 :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로 정서와 감정을 표출하는 문학이다.
- ② 서사 갈래 : 허구성을 바탕으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 ③ 교술 갈래 : 작가가 체험한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교훈이나 관념을 드러내는 문학이다.
- ④ 극 갈래 : 이야기를 전달하되 직접 보여 주는 문학이다.
- ⑤ 서사 갈래 :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 황진이 -

(나)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 김광섭, <저녁에> -

마포고등학교 (서울)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3장 6구 형식의 사설시조이다.
- ② (가)와 (나) 모두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나)에는 별과 '나'의 관계 회복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와 (나)의 모든 밤은 모두 시적 화자에게 고독함을 느끼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 ⑤ (가)는 비물질의 물질화를 통해, (나)는 과장과 점층을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마포고등학교 (서울)

15. (가)의 표현 및 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 ②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화자의 태도를 표현했다.
- ③ 대구를 통해 임과 함께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 ④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입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 ⑤ 의미상 대조를 이루는 시어를 사용해 입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했다.

- ① 좋지[조치], 그렇지[그러치] ③ 떠=뜨+어 ('-'탈락)
- ④ 많더라[만더라] ⑤ 로+고=노고 (두음법칙)

20.③

▶꽃눈[꼰눈→꼰눈], 넣는[넙는→넙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 ① 끝단[끝단→끝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② 논리[놀리]: 유음화
- ④ 부역도[부역도→부역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 ⑤ 앞바다[압바다→압빠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21.③

▶울림소리 'ㄹ'이 안울림소리 'ㄱ'을 만나 'ㄱ'을 울림소리는 만드는 것임.

22.②

▶인류[일류]: ㄴ+ㄹ→ㄹ+ㄹ

23.④

▶값[갑]: 탈락. 나머지는 교체임. 닦다[닥따], 입술[입쉴], 굳이[구지], 국물[궁물]

24.⑤

▶'물상식'[물쌍식]은 26항의 예임.

26.③

- ① '쇠붙이→[쇠부치]'는 구개음화로 음운의 수는 그대로임.
- ② '좋아→[조아]'는 'ㅎ'이 탈락한 거임.
- ④ '툭밥→[툭빡]'은 'ㅂ'이 'ㅃ'로 교체된 거임.
- ⑤ '하얏게→[하야케]'는 'ㅎ'이 'ㄱ'과 만나 'ㅋ'으로 축약된 거임.

27.④

① '역할[여갈]'은 거센소리되기임. ② '발전[발쩐]'은 ㄷ의 예임. ③ '꽃다발[꼰따발]'은 ㄱ의 예임. ⑤ '간 사람[간 싸람]'은 ㄹ의 예가 아님.

28.⑤

① ㉠도 발음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② ㉡은 음운 축약에 해당함. ③ '피어[피여]'는 이중모음화로 ㉠의 예가 아님. ④ ㉢도 음운 변동 결과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됨.

29.⑤

① 신라[실라]: 유음화 ② 백마강[뱅마강]: 비음화 ③ 쌓지[싸치]: 거센소리되기 ④ 확정[확정]: 된소리되기

32.④

▶<보아 - 봐> 본말-줄임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 음운의 성질을 드러내지 못함.

33.①

- ▶물난리[물랄리]: 유음화
- ② 뭇뭇이[목목시→몽목시→몽목씨]
- ③ 꽃망울[꼰망울→꼰망울]
- ④ 키웁만[키웁만→키웁만] ⑤ 앞마당[압마당→암마당]

34.④

▶줄넘기[줄럼끼]: 유음화
① 'ㄴ'이 'ㄹ'로 바뀜. ② 유음 앞 혹은 뒤로 'ㄴ'이 'ㄹ'으로 바뀌는 현상. ③ 결단력[결판력]은 'ㄹ'이 'ㄴ'으로 바뀜. ⑤ 조음 방법을 같게 하는 음운 현상임.

35.④

▶인접한 자음 간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지 않아, 비슷하게 하려는 현상임.

36.②

▶울림소리 뒤에서도 일어남.

37.⑤

- ▶꽃히다[꼬치다]: 거센소리되기
- ① 두 개의 자음이 하나의 자음으로 변하는 축약 현상이다.
- ② 예사소리가 거센소리로 변하는 축약 현상이다.
- ③ 두 개의 음운에 하나의 음운이 축약되는 현상이다.
- ④ '실소'[실쏘]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남.

40.④

- ① '죄'는 '쨌'를 발음할 때보다 혀를 낮추어야 한다.
- ② '돌'은 '달'을 발음할 때보다 혀를 높여야 한다.
- ③ '개'는 '구'를 발음할 때보다 입술을 펴야 한다.
- ⑤ '개'도 달리 소리를 내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41.②

▶'문고리'는 어간+어미의 결합이 아니기에 24항의 예로 적절치 않음.

43.②

▶㉠은 받침 중 일부가 뒤의 초성 자음과 만나 축약된다.

44.③

▶탈락(겹받침 탈락) 첨가(ㄴ첨가) 교체(비음화)

45.①

▶㉡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피동 사동 접사 '기'가 포함된 것은 '된소리되기'예외임.

<<해설>>

46.⑤

	단어	발음	달라진 음운	음운 변동의 종류
㉠	량(良)+심(心)	[양심]	ㄹ 탈락	두음법칙
㉡	산림	[살림]	ㄴ→ㄹ	유음화
㉢	맨- + 입	[맨닙]	ㅇ→ㄴ	ㄴ첨가
㉣	똑같이	[똑까치]	ㄱ→ㄱ ㅌ→ㅊ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47.②

▶벼훑이[벼훑치]

48.④

▶㉠, ㉡, ㉢는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이중모음화임.

49.①

② 밟는[밤 : 는] ③ 얹거나[억꺼나] ④ 넓죽하다[넙쭈카다] ⑤ 넓둥글다[넙똥글다]

50.②

▶‘음운’은 말의 뜻을 구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임.

51.②

(나): 탈락, (다): 축약, (마): 첨가

52.③

- ① 학문 : ㄱ+ㅁ → ㅇ+ㅁ (가)에 해당.
- ② 좁히다 : ㅂ+ㅎ → ㅍ (다)에 해당.
- ④ 해돋이 : ㄷ+ㅣ → ㅈ+ㅣ (라)에 해당.
- ⑤ 서라 : ㅅ-+-어라 → ㅅ-+-라 (나)에 해당.

53.④

- ① ‘측량’[측냥]만 (가)의 예를 보여준다.
- ② ‘살펴’는 (마)의 구체적 예를 보여준다.
- ③ ‘복잡하고’[복자파고]만 (다)의 구체적 예다.
- ⑤ ‘보여’는 [보여]로만 발음되 (마)의 구체적 예로 볼 수 없음.

54.③

▶끝을[끄틀]: 연음법칙

56.⑤

- ① 싫어[시러] → 자음군 단순화 ② 피+어[퍼] → 축약
- ③ 연세, 여자 → 두음법칙 ④ 꽃꽂이[꽂꼬지], 살살이[살싸치] → 구개음화. 떳떳이[떳떠시]는 구개음화가 아님.

57.①

② 밟고[밥꼬], 말살[말쌀] ③ 맑게[말게] ④ 맛있다[맛딘따], 디근에[디그세] ⑤ 통닭이[통다기], 등용문[등용문]

58.⑤

▶대통령[대통령]: 비음화. 나머지는 ㄴ첨가임.

59.⑤

▶㉠ 물난리[물란리→물랄리] ㉡ 곧이듣다[고지듣다→고지듣따]

- ① ㉠: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② ㉠: 자음군 단순화로 1개 마이너스, ㉡: 축약으로 1개 마이너스.
- ③ ㉡: 거센소리되기로 한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남.
- ④ ㉢: 유음화

60.⑤

▶㉠ 굳이[구지]: 구개음화, 만며느리[만며느리]: 비음화, 국물[비음화], 받는다[반는다] / ㉡ 좋다[조타], 옳다고[올타고], 많다[만타]: 축약

61.③

▶조음 방법이 바뀐 것임.

4-(1) 한글 맞춤법

1.①

② 깎두기→깎두기 ③ 야단법석→야단법석 ④ 출산률→출산율 ⑤ 연도→연도

2.④

① 수 없이 ② 것뿐이니까요 ③ 수천 개의 ⑤ 될 겁니다

3.⑤

▶체언 뒤에 사용된 ‘만큼’은 조사로 붙여 써야 함.

4.③

▶하든데→하던데

5.④

- ① ‘뒷일’은 뒷말 ‘일’의 모음 ‘ㅣ’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② ‘양치물’의 뒷말 ‘물’의 첫소리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③ ‘비소리’는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 사이시옷을 적는다.
- ⑤ ‘갯수’는 한자어 개(個)와 수(數)가 결합된 단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6.②

ㄷ: ‘타고 오면 돼’가 맞음, ㄹ: ‘나중에 배요’가 맞음

7.⑤